

5인 5색 지금, 여기 제주 색다른 섬 풍경 속으로

이중섭미술관 제주작가전 김현수 임영실 홍지안 등 색과 형태로 포착한 풍경 박순민의 이상향 서귀포 송묘숙의 친근한 사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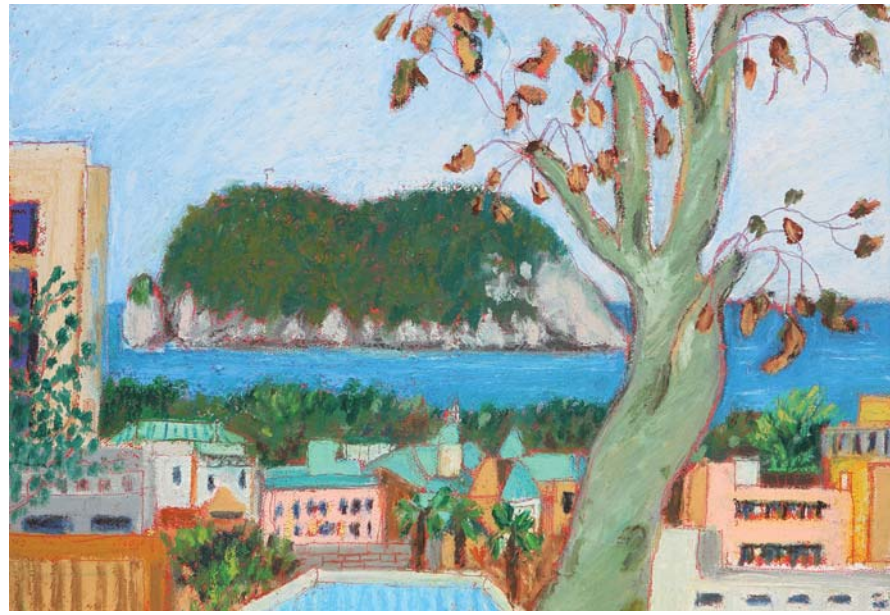


김현수의 '나의 숲'.

가는 해, 오는 해를 미술관에서 맞으면 어떨까. 제주지역 국립미술관마다 특별전, 소장품전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연말연시 추억을 안기는 가운데 서귀포시 도심에 들어선 이중섭미술관은 '색(色)다른 섬 풍경'전을 열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은 한국전쟁 시기 제주에 머물렀던 피난 화가 이중섭을 기리며 지어진 공간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발굴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에는 김현수, 박순민, 송묘숙, 임영실, 홍지안 등 다섯 명의 제주 작가를 초청했다. 이들은 제주섬에서 만난 여러 풍경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30여 점의 그림을 내걸었다.

'나의 숲' 등을 그린 김현수는 녹색 모노톤으로 형태를 불분명하게 구획하고 경계와 대상들의 구분이 중첩되거나 흡수되는 평면화를 보여준다. 입체 형상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진



박순민의 '아, 이 중섬로 2019'.

전되면서 마치 추상화 단계로 나아가는 듯하다.

'또 다른 언어-서귀포' 등을 발표해온 박순민은 서귀포를 마치 서정적인 동화의 나라로 표현해놓았다. 오일파스텔의 부드러운 느낌이 그같은 정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섬이 보이는 도시 풍경은 따뜻한 이상향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처럼 느껴진다.

'유채꽃', '제주애(愛) 정원' 등을 선보이고 있는 송묘숙은 어디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제주 풍경을 친근하게 살려냈다. 화면 위에 떠오른 대상

이 시골의 풋풋함을 담았다.

임영실은 식물의 특징을 찾아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다. 형태와 구조에서 분리되는 덩뎁 등에서 의식의 흐름과 같은 시간의 흔적이 엿보인다. '정렬된 풍경', '환영하는 나무' 등을 볼 수 있다.

홍지안은 모래와 바다, 그곳에 맞닿은 땅을 색을 이용해 단순화시켰다. 넓은 면에 비해 보일 듯 말 듯 한 선묘의 형태에 마음이 실린다.

전시는 2020년 2월 23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760-3567. 전선희기자

우리 집에 그림 하나 걸어볼까요

탐라미술인협회 소품 판매 김만덕기념관 작은그림전

연말연시 제주 전시장에 그림 장터가 됐다. 탐라미술인협회가 2019 송년 미술전람회로 소품 판매전을 준비했고 김만덕기념관에서는 나눔의 의미

를 더한 작은 그림전을 마련했다. 현인갤러리는 48주년 기념 특별 사은전을 기획했다.

탐라미술인협회 소품전은 '몽클'이란 이름을 달았다. 강문석 고길현 김수범 김영훈 김영화 박소연 서성봉 양미경 양천우 이종후 정용성 홍덕표 등 19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이달 31

일까지 KBS 제주 갤러리. 제주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하는 작은 그림전은 '우리 집에 그림 하나'란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작가는 강명순 고윤식 고재만 김미령 김성란 백광익 신승훈 양근석 유창훈 이서종 최창훈 현덕식 등 38명에 이른다.

전시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 도내 어려운 이

웃을 돕는 데 쓰인다. 전시는 2020년 2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제주시 노형동에 자리잡은 현인갤러리는 '파인 아트 마켓'으로 미술 애호가와 만나고 있다. 현인갤러리의 전신을 포함 1971년 개관 이래 초대전, 기획전 등을 통해 지금까지 수집한 작품중에서 유화 1-500호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1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검은 바탕에 내리는 우주의 비꽃

김강훈 개인전 '물과 물' 내달 5일까지 새탕라움

그는 스스로를 '그림쟁이'이자 '낙시꾼'이라고 했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자연과 자연의 관계로 작업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낙시가 영향을 끼치게 아닐까. 제주 태생으로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와 2공작실 학사, 3공작실 석사를 마치고 현재 홍익대학원 회화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강훈 작가. 중국에서 회화 기법을 공부한 그가 '물(水)과 물(物)'이란 제목으로 철학 같은 어둠 속에 빗줄기가 춤추는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김 작가가 그려낸 밤바다는 '검다'는 표현 하나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빛깔을 지녔다. 괴테의 말처럼, 어둠 속에 색채가 있다. 지상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거친 바람을 품은 빗방울

이 사방으로 날린다. 그 비에서 작가는 '우주의 뒤틀림'을 발견한다. 낙시 바늘이 물고기 입에 닿는 순간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 시작되듯, 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 먼 우주에서 날아온 물(水)과 이 땅에서 발 딛고 있는 물(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작가는 거기서 느끼는 감각을 인상적인 화면으로 옮겨놓았다.

'낙시를 하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많다.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내릴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바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있다. 물은 생명수이다. 물은 바다를 이루어 고기가 살게 한다. 고기는 사람을 살린다. 사람은 무얼 살릴 수 있을까.'(작가노트)

지난 28일 시작된 전시는 새해 1월 5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은 제주시 중앙로 99 3층에 있는 새탕라움. 단, 12월 31-1월 2일에는 문을 닫는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김강훈의 '밤'.

이수민 작가 드로잉 원화 강정마을 스페이스 산호

서귀포시 강정마을 스페이스 산호에서 '우리는 매일 이사를 했습니다'란 제목을 단 이수민 작가의 드로잉 원화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집만도 못한'과 '그들의 낮과 밤' 원화가 나왔다. '집만도 못한'은 서울에서 세입자로 사는 동안 집을 구하며 생긴 여러 사건을 담은 책으로 불합리한 도시 생활이 그려졌다. '그들의 낮과 밤'은 우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며 도시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생활이 등장하는 달력이다.

전시는 2020년 1월 12일까지, 기간 스페이스 산호를 찾으면 '집만도 못한'과 2020년 달력 '그들의 낮과 밤'을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10-3430-7334. 전선희기자

8인 작가 '아일랜드 피플' 서귀포시 예술공간 파도

비밀 친구를 의미하는 '마니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편지나 선물, 선형 등을 베푸는 마니또를 전시장으로 끌고 왔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작가가 마니또의 형식을 빌려 서로의 작품을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지난 28일 시작된 2020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소암로 예술공간 파도에서 진행되는 '아일랜드 피플(LLand P+)' 전이다.

작가들은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결국 타인과 관계 맺기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본 '나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고훈호 김강훈 김산 박주우 배효정 양민희 임영실 최창훈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4)733-7374.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지

김선 시조집 '사람이 흐르다'

젊은시조문학회에서 활동하는 김선 시인이 첫 시조집 '사람이 흐르다'(한그루)를 냈다.

부산을 고향으로 둔 시인은 20년에 이르는 제주살이에 대해 "문밖을 나서며 여행자가 되는 이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제주의 길을 걸으며 만난 사람과 풍경을 시편에 실었다. '사랑도 타이밍', '길동무', '수국', '우선 멈춤' 등 4부에 걸쳐 60여 편을 수록했다.

임애월 시집 '그리운 것들은...'

계간 '한국시학'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제주 출생 임애월 시인이 시집 '그리운 것들은 강 건너에 있다'(문학사상)를 묶었다.

이번 시집에는 '봄을 기다리며' 등 60여 편이 실렸다. 오후 두시의 서울 지하철에서 환하게 쬐진 봄빛을 보고 지상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시인은 신에게 기도하듯 낮은 자세로 기다리는 곳간의 계절에서 치명적인 달달함을 맛본다.

이지민 시집 '낙타와 낙엽'

제주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있는 이지민 시인이 시집 '낙타와 낙엽'(시와실천)을 출간했다.

2016년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해 그동안 써온 시들을 차곡차곡 묶어낸 이번 시집은 '서우봉에도 봄은 오고', '바위를 썬주는 사연', '잃어버린 연인을 만난 듯', '애련' 등 4부로 구성해 60편 넘게 묶었다. '흔들리는 가을', '함박눈 내릴 즈음', '성급한 겨울', '어떤 가을' 등의 시편이 담겼다.

양은순 시집 '해당화는...'

건강 문제로 기약 없는 제주살이를 시작했던 양은순 시인이 이 땅에서 키워올린 시심들을 모아 시집을 냈다.

'해당화는 이렇게 피어난다'(도서출판 국보)란 제목이 달린 이 시집에는 '꽃이 필 때는 많이 아픈 거래', '서귀포 미인', '깨어진 오동나무의 꿈', '가을이 떠난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등 군데군데 사진을 곁들여 70편에 가까운 시를 수록했다.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업체

제주출발 베트남 직항전세기

하노이, 하롱베이 5일

제주에서 직항으로 떠나는 품격있는 베트남여행 패키지

주요 특전 사항

하롱베이 선상유람시 기암절경이 일품인 항루원 비경 포함(스피드보트)

하롱베이의 색다른 해상케이블카 하롱파크 포함 (대관람차+케이블카)

하노이 옛도심지를 이곳저곳 살펴볼 수 있는 스트리트카 포함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베트남 전신마사지 2시간 체험 포함

뽕족탕의 산이라는 엔뜨산국립공원+엔뜨사찰(케이블카 탑승)

출발일자

2월 19일(수) 1인 1,100,000원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TAX 및 유류할증료), 호텔숙박료(2인1실), 식사료, 운송료, 입장료,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봉사료(전일정 1인 3만원), 기타개인비용

예약문의 **누리여행 758-54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늘푸른여행사 726-3344**